

건강 칼럼

결핵 바로 알고 대처하자

결핵은 매년 약 35,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약 2,300명이 사망하는 심각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우리나라는 15세 이후 청소년기에서 결핵 발생률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많은 사람들이 결핵을 과거의 질환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결핵은 전 세계적으로도 단일 감염질환에 의한 사망원인으로 AIDS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보건문제이다.

▲ 결핵이란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공기매개 감염질환으로 신체 여러 부분을 침범할 수 있다. 결핵 환자의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 등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 감염이 된다. 보통 폐를 통하여 감염이 시작되고 폐를 제외한 우리 몸의 여러 장기 뇌, 후두, 뼈, 위장관, 복막, 콩팥 등을 침범하여 각 기관의 결핵을 유발한다. 다만, 활동성 결핵을 가진 환자만이 주위 사람들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수 있으며, 활동성 결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결핵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나면 전염성이 없어지게 된다.

결핵균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모두 발병하는 것은 아니다.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으나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잠복결핵감염이라고 하는데, 잠복결핵감염은 결핵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결핵균을 전파시키

지 않는다.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 중 10%가 결핵으로 발병하므로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잠복결핵 감염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

▲ 감기로 오인하기 쉬운 결핵 증상

가장 흔한 폐결핵의 초기 증상으로는 2~3주 혹은 그 이상 지속되는 기침, 가슴의 통증, 가래, 객혈 등이 있다. 객혈은 대체로 병이 진행된 경우에 나타난다.

결핵의 전신 증상에는 체중 감소, 발열, 밤에 생기는 발한, 오한, 식욕 감소 등이 있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애매하여 사람들에게 따라서는 모르고 지낼 수도 있다.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이러한 증상들이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지만, 질병이 진행되게 되면 만성화되고 악화되어 기침, 흉통, 객혈을 보이기 시작한다. 폐결핵이 아닌 다른 장기의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장기에 따라 고유한 다른 증상을 보일 수도 있다.

▲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검사

받아야 결핵의 주요 증상은 대부분 감기와 비슷하여 환자 자신이나 의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감기나 다른 폐 질환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증상만 가지고는 결핵인지 아닌지 진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는 결핵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결핵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병력 확인과 진찰을 한 뒤, 결핵균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를 시행한다.

다음으로는 활동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 X선 촬영과 결핵균을 확인하기 위한 객담 도말검사 및 배양검사를 시행한다. 이런 초기 검사 결과가 결핵을 진단하는 데 부족한 경우 환자에 따라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CT), 기관지 내시경 검사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결핵이 진단되면 배양된 결핵균에 어떤 약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약제 감수성 검사와 결핵균의 결핵균 여부를 확인하는 균 감별검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 예방이 가능한 질병, 결핵

15세 이상이 되면 결핵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더욱 주의해야 한다. 결핵은 예방접종, 기침 예절, 정기적인 검진을 잊지 않는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결핵균이 공기로 전염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환기가 결핵이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또한 결핵 환자가 결핵 환자로 의심되는 환자들은 적절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기침예절을 지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의료진은 물론 병원, 의원을 방문한 다른 환자나 보호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손이 아닌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휴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한다.

기침을 한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어 준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결핵의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서 BCG 예방접종을 권유하고 있다.

이 예방접종은 살아 있는 결핵균과 유사한 세균을 약하게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 결핵균에 대한 면역기능을 만들어 주어, 우리 몸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아 결핵균에 의한 발병을 예방할 수 있다. 접종 최적 시기는 출생 직후이며,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결핵 예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사설

전북의 인구는 현재 186만1955명

해마다 인구 감소가 지속적이다. 전북의 지난해 현재 인구가 186만 1,955명이다. 작년보다 2,836명이 줄었다는 보고이다. 인구 하향 고착화 현상에서 벗어날 방안을 찾아야겠다. 도내 거주 인구가 하향 없이 줄고 있는데 그저 관할지 않은 땅을 잃지 않는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전북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한두 해 전부터 그런 게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그러고 있다. 전북의 인구가 늘지 않고 줄고 있는 중에 하향 고착화 현상이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전북의 인구가 줄고 있는 걸 확인하면서도 뾰족한 대책없이 세월만 죽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북이 활력을 잃고 있다는 진단은 결코 허튼 것이 아니다. 이제 전북은 고령자들이

많은 지역이 돼버렸다. 출산 능력도 생산 능력도 없는 늙은이만 늘고 있으니 지역의 현실이 딱하다. 청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 전북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다 분발해야 한다. 고용인정을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쩌다 발표되는 통계 수치가 아니다. 참담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미래 설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N포 세대'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터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전북도는 도내 거주 인구가 끊임없이 줄고 있는 딱한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젊은이가 고향을 떠나는 것을 보고서도 고민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된다. 인구 감소는 심각하게 넘겨버릴 문제가 아니다. 참담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미래 설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N포 세대'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터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전북도는 도내 거주 인구가 끊임없이 줄고 있는 딱한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 기간제 일자리라 비정규 일자리는 젊은이들에게 여기 있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재발 볼 결혼 하려고 성화를 부릴 수도 없다.

전주의 대형유통업체들 왜 이러나

전주의 대형유통업체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여기 관계자들에게 할 말이 있다. 지난해 지역 기여도가 여전히 쥐꼬리라는 보도이다. 전주 시내 11개 대형유통업체들의 행태를 보니 고약하다. 지역사회를 위한 기여라는 게 매출액의 0.44%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이마트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계상하기도 부끄러운 수치라는 지적이다.

정말 이래서는 곤란하다. 지역 경제를 위해서 협조가 있어야겠다. 지금 대형유통업체들이 보이는 영업 행태는 해도해도 너무 한다. 지역사회와 함께 가려는 정신 태도를 배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 년 전의 일이 생각난다. 전주 시가 영세상인들과 상생해야 한다면 협조를 요구했을 때 그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 말이다. 재래시장과 골목의 영세한 상인들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때 대형유통업체들은 그에 따라주었다. 그것은 고마운 변화였다. 그런데 그게 그뿐이었다.

지금 대형유통업체들은 협조할 게 더 있다. 전주 시민들은 물론이고 지자체하고도 친화하려고 해야 한다. 해마다 마지못해 쥐꼬리의 끝 부분만 잘라주는 식의 생색 내기 작태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이익 창출이 우선하는 시대라지만 지켜야 할 도리는 지켜야 한다. 자본주의 논리와 시장 논리만 현상처럼 휘두르면 지역사회에 희망이 없다. 거듭 말하지만 공존과 상생의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마땅하다. 시민들과 지자체가 대형마트의 행태 때문에 굶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마트를 비롯해 롯데마트,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등 나머지 대형유통업체들은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한다. 지역 경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서를 위해서도 그렇다. 기여도가 전체 매출액의 0.44%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주 시민이 무슨 동남아치도 아니고 원성을 사기에 딱이다. 그것은 시냇물로 노름방 개경 수준에도 못 미치거니와 말이다.

독자제언

구조 요청시 전신주 교유번호를 확인하자

위급한 상황이냐 낯선 곳에서 구조 요청을 하려 해도 현재 위치를 몰라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당길 수 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주변에 전신주를 찾으면 된다.

최근 필자도 교통사고를 당하고 위치를 몰라 당황한 적이 있지만 주변에 전신주를 찾아 '전주 번호찰'이라는 교유번호로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전국에 50m간격으로 850만 개에 달하는 전신주에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전주 번호찰'이라는 교유번호가 있다. 이 번호는 위성 GPS좌표를 바탕으로한 위도와 경도, 세부위치를 숫자와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112 또는 119

로 구조 요청 시 전신주 교유번호를 통해 위치를 알려줄 때에는 모든 번호를 알려주기 보다 위도30, 경도71, 세부위치0071로 구분돼 있는 위쪽 8자리만 '30710071'이라고 알려주면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

이 번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신주에 쓰여 있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번호의 의미를 아는 사람에는 유용한 정보이므로 이제부터는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요청시 꼭 확인해 보자. 더불어 전신주에 적힌 전주번호찰로 위치 확인을 하는 것이 핸드폰의 GPS 위치추적보다 더 정확하고 몇 배가 더 빠르다고 하니 앞으로 시, 군, 구에서 보다 종합적인 홍보가 더 필요할 것이다. 김윤철 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독자제언

바르고 건강한 사이버 세상 만들기

사이버 범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경찰에서 15년도에 매년 4월2일을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로 제정을 하였다.

기억하기 쉽도록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사이버범죄 예방활동을 범국민적인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먹튀, 사이버금융사기,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바르고 건강한 사이버세상을 위해 「3대 사이버 반칙행위 근절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상황별 예방수칙 중 첫째, 인터넷 먹튀 중 직거래 사기는 핸드폰에 사 이버갑 앱을 설치하여 거래 상대방이 사기의심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거래를 하도록 하자. 소금물 사기는 대형 오픈 마켓에 등록된 업체라도 많은 할인 등으로 유혹하는 등 사기의상이 되는 경우는 직접 현금결제 를 하지 말고 사이트의 안전결제 를 이용하도록 하자.

둘째 사이버금융사기의 스미싱·파밍 등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클릭하지 말고 알 수 없는 이성으로부터 유혹적인 메시지 등을 받았을 경우 응대하지 말자.

셋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은 인터넷을 통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특정인임을 알 수 있고 공연성이 인정되면 1:1 메신저에서도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악플을 달지 않도록 하자. 황의송 순경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위

용 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